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8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2. 11. 18.(금) 09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정규삼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종민 (jmlee88@korea.kr)

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

□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.18(금) 08:00 수출입은행에서 「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」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

- ❶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(금융위, 제목만 공개)
- ❷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(중기부, 제목만 공개)
- ❸ 공공부문 해외투자 관련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(기재부, 제목만 공개)

※ [붙임]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



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최근 기온이 낮아지며 바야흐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
올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만큼,
‘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’를 확실히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.

이전 두 차례 회의(10.14일, 11.4일)에서 연달아
에너지 절약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고,
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중입니다.

쏙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
각자가 터틀넥이나 스웨터를 입는 등
개인 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
오늘 산업부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,
에너지 유관기관들이 함께 모여
겨울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
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
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.

금일 첫 번째 안건은
‘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’입니다.

어제 발표된 ‘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
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하였습니다.¹⁾

정부는 이러한 소득·분배상황을 비롯한
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
소득·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.

1) '22.3/4분기 총소득은 3.0% 증가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△2.8% 감소
5분위배율(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): ('20.3/4)5.92 ('21.3/4)5.34 **(‘22.3/4)5.75**

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
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
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,
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(11.2일 공표)하여
11.7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.

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
약 1.5배 수준(1단계 2.5천억원 → 2단계 3.9천억원)으로 증가하는 등
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 홍보하여
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,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
줄이도록 하겠습니다.

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, 보금자리론²⁾을
통합하여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,
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·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.

최대한 빠른 시일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여
발표토록 하겠습니다.

두 번째 안건은 ‘중소기업·소상공인 자금현황 및 대응방향’입니다.

그간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
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³⁾해 온 가운데,

최근 대출금리 상승⁴⁾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,
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2) (적격 대출) [주택가격] 9억원 이하 [소득한도] - [대출한도] 5억원
(보금자리론) [주택가격] 6억원 이하 [소득한도] 0.7억원 [대출한도] 3.6억원

3)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잔액(조원, 기말기준, 한은): ('19) 961 ('20) 1,118 ('21) 1,285 ('22.9) 1,421

4)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(% , 한은): ('22.1월) 3.52 (4월) 4.06 (7월) 4.36 (9월) 4.87

벤처·스타트업의 경우에도,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·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⁵⁾되는 등, 점차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.

이에 정부는 지난 주부터 중기부 중심으로 '3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'⁶⁾를 운영하여 소상공인, 중소기업, 벤처업계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, 협력업체간 관계, 노무 등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,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.

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, 수출 판로 지원,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,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.

아울러, 오늘 회의에서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⁷⁾,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드릴 계획입니다.

앞으로 주무부처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(모두발언 종료)

5) 벤처펀드 결성액(전년비, %): ('22.1/4분기) 69.1 (2/4분기) 40.7 (3/4분기) 0.6
벤처투자액(전년비, %): ('22.1/4분기) 67.7 (2/4분기) 0.3 (3/4분기) △40.1

6) 중기부 + 중진공, 소진공 등 산하기관 + 외부 전문가

7) 과거 환율이 낮았던 시기에 환위험 헤지 없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수해 집행했던 해외투자 자산의 일정 규모를 현재 높은 환율 수준으로 선물환 매도(환헤지)하여 환평가이익을 확정